

# 효성, 스틸코드 3만3600톤 투자!

## 중국 칭다오시 1억달러 투자 ... 시너지효과로 중국시장 10% 점유

효성이 중국 칭다오시에 대규모 스틸코드 공장을 건설해 중국 타이어 생산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효성은 칭다오시 경제기술개발구에 총 1억1000만달러를 투자해 3만3600톤의 스틸코드 공장을 건립키로 하고 9월6일 효성 본사에서 이상운 사장과 XIA GENG(夏耕) 칭도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10월 중 효성스틸코드칭도유한공사(曉星SteelCord青島有限公司)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공장 건립에 착수한다.

2004년 9월까지 5000만달러를 투입해 1만6800톤의 스틸코드 설비를 1차로 건설하게 되며, 이후 6000만달러를 추가 투입해 3만3600톤으로 증설할 예정이다.

효성은 중국 자동차 시장 확대에 따른 스틸코드 시장의 급속한 수요증가 추세에 신속히 대응하고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현지화 전략의 일환으로 공장 건립을 추진했으며, 생산되는 스틸코드는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하게 된다.

스틸코드란 타이어의 내구성을 보강하기 위해 타이어 속에 들어가는 일종의 보강재로 섬유재질인 타이어코드와 달리 강선 재질이며, 승용차 외에 화물차, 버스 등 주로 고강도를 필요로 하는 차량에 사용된다.

공장이 완공되면 효성의 스틸코드 생산규모는 현재 6만8000톤에서 10만1600톤으로 증가해 세계시장의 7%, 중국시장의 10%를 점유하게 될 전망이다.

효성 관계자는 “공장 건립은 현재 절강성에 건립중인 산자용사 공장, 타이어코드지 공장과 함께 중국시장에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으로의 진출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효성의 타이어코드 부문은 현재 9만4000톤의 생산능력으로 세계시장의 22% 이상을 점유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에서는 유일하게 Polyester 타이어코드, 나일론 타이어코드, 스틸코드에 이르는 3대 타이어코드 소재를 전부 생산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 효성-칭다오시 스틸코드 설비 투자의향서 체결



† 효성 안홍문 부사장(왼쪽)과 ZHAO SHIYU 칭도 개발구관리위원회 부주임

<Chemical Journal 2003/09/08>